

생성어휘부 이론의 다의어 기술 방법과 그 적용: 동사 ‘사다’와 ‘팔다’*

강 범 모
(고려대학교)

Kang, Beom-mo. (2002). Polysemy in generative lexicon theory: With reference to Korean Verbs *Sada* ‘to buy’ and *Palda* ‘to sell’. *Language Research* 38(1), 275-293.

In the theory of Generative Lexicon, polysemy is not handled by the sense enumeration method, the traditional means of description in lexicography. Instead, it uses various generative mechanisms such as cocomposition, type coercion, and selective binding. Such generative devices operate on rich lexical representations incorporating event structure, argument structure and qualia structure. After reviewing those mechanisms with many Korean examples, I extend the generative lexicon analysis to Korea verbs of transaction, *sada* (“to buy”) and *palda* (“to sell”). Only those senses which are regularly, or productively related will be targets of unified description.

Key words: polysemy, generative lexicon, lexical semantics, cocomposition, telic role, argument structure, event structure, dictionary

1. 들어가기

자연 언어의 단어들은 한 가지 뜻만을 갖지 않고 여러 개의 뜻을 갖는다. 이러한 다의성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부분의 단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의어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은행에 들렀다’에서처럼 장소 혹은 건물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그 은행에 취직했다’에서처럼 인간의 단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장미’는 ‘장미 한 송이’에서처럼 꽃을 뜻할 수도 있고, ‘장미 한 그루’에서처럼 식물을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고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의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과제 “다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연구 및 모형 개발”의 일부로 연구되었다(과제번호: Y00248). 이 논문의 초고는 한국언어학회 2001 여름연구회에서 발표되었다. 도움말을 주신, 홍제성, 김현권, 이기용, 장석진, 임지룡, 양정석, 이익환, 이정민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익명의 「어학연구」 심사자들의 지적도 논문의 내용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를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을, 전통적인 사전 편찬에서는 어떤 단어에 대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뜻을 나열하는 방법을 취하여 기술해 왔다. 이러한 방법이 편리하고 또한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이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규칙적 다의성’(Apresjan 1973) 혹은 논리적 다의성의 경우에 어떤 단어의 하나하나의 뜻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 또는 규칙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리나 규칙성은 새로운 단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유한한 수의 문법 규칙들이 무한한 수의 문장을 표현하듯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무한한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는 생성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은 바로 이러한 어휘부의 생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전산적 어휘의미론이다.

뜻 나열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들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예이다.

(1) 감자를/케익을 굽다

‘굽다’는 상태변화와 제조의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굽다’에 두 가지 뜻이 있다기보다는 한 가지 뜻의 ‘굽다’가 다른 종류의 명사와의 결합 과정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더 맞는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열을 가하는 행위가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생성어휘부 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창조성을 문장의 층위가 아니라 단어의 층위에서 인정하고, 통사부의 생성규칙과 같은 생성적 어휘 규칙을 이용하여 단어 뜻의 무한성을 규칙성으로 파악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영어의 단어 기술에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Pustejovsky, 1995, 2000; Busa, 1996; Buitelaar, 1998 등), 한국어의 단어 의미 기술에도 부분적으로 그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최경봉, 1996; 이정민 외 1997; Lee, et al. 1998; 강범모, 1999; 이예식, 1999; 김운신, 2001 등).

이 글에서는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다의성을 표상하고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어의 ‘사다’와 ‘팔다’라는 동사들의 다의성 기술이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2. 다의어 기술을 위한 생성어휘부 이론의 기제¹⁾

우선,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단어의 의미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1) 이 절에서는 생성어휘부에서 다의어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말에 적용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이 절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생성어휘부의 다의어 기술 방법을 우리말의 예를 이용하여 간략히 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3절의 ‘사다’와 ‘팔다’의 다의어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성어휘부 틀을 배경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말과 관련하여 생성어휘부의 이론과 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독자는 3절로 건너뛸 수 있을 것이다. “어학연구” 심사자가 제기한 대로, 이 논문은 연구논문이면서도, “해설 강의”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띤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기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생성어휘부 이론의 의미 표상의 대전제는 필요한 만큼 단어 의미의 구조를 세밀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할 때 사건구조, 논항구조, 특질구조, 그리고 어휘 계층구조를 기술한다.

먼저, 사건구조(event structure)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건의 개념은 Vendler (1967), Dowty(1979) 등이 논의하였던 상태, 과정, 완성, 성취 술어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결정하는 하부 사건의 구조를 말하며, 이러한 특성이 어휘의미에 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들 중에는 상태, 과정, 전이가 구분되며 전이는 상태, 과정 혹은 또 다른 전이의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할 때, 복합적 사건의 하부 사건들 중에 중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표시해 줌으로써 술어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짓다' 등 완성동사는 과정(e1)과 결과 상태(e2)의 두 하부 사건으로 구성되고, 그 순서는 과정 후 결과 상태이며 그 중점은 과정에 있다.

(2) '짓다'

- 사건구조 = 사건1 = e₁: 과정
- 사건2 = e₂: 상태
- 제약 = e₁ < e₂
- 중점 = e₁

다음,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에 대하여 살펴보자. 단어, 특히 서술어의 의미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는 그것의 논항 정보이다. 즉, 어떤 술어가 몇 개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표현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가 하는 정보는 전통적으로 '논항'의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고²⁾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논항과 부가어의 구분에 더하여 당연논항(default argu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논항은 통사적, 의미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이고, 부가어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부가적인 성분인데 반하여, 당연논항은 의미적으로 필수적 성분이나 통사적으로는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성분이다.

특질구조(qualia structure)는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실질적인 어휘의미의 내용을 표시한다. 특질구조 안에는 단어가 나타내는 개체 혹은 사건이 다른 단어의 그것들과 구별시켜 주는 의미 부분인 형상역(formal),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구성역(constitutive),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 그리고 발생적 요인을 표시해 주는 작인역(agentive)의 네 가지 의미특질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책상'은 하나의 물체이며(형상), 재료가 보통 나무이며(구성),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기능), 그 기원은 만드는 작업을 통하여서이다(작

2)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은 모든 언어 표현을 함수와 논항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기술하는 이론이다. 한국어의 범주문법에 관해서는 강범모(2001) 참조.

인). 이러한 내용을 대략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³⁾

(3) 책상

특질구조 = 형상 = x: 물체
 구성 = 구성됨(e, x, y:나무)
 기능 = -에서_공부함(e', z:사람, x)
 작인 = 만드는_행위(e'', w:사람, x)

마지막으로, 어휘부의 전체적 의미 구조와 관련된 정보가 어휘계층구조이다. 이것은 WordNet(Fellbaum, 1998; 장석진, 2001)과 같은, 상하위 관계에 입각한 어휘개념 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에 딸린 어휘의미 정보를 계승받는다. 이것은 다의어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다의성 포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제는 복합타입(complex type)의 개념이다. 단어의 의미표상에는 개체 및 사건의 타입(유형)에 대한 정보가 명세된다. 타입은 자연언어의 술어와 논항의 결합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존재론에 입각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용인성의 차이는 술어와 결합하는 논항의 의미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다.

- (4) a. 정수가 물을 마셨다.
 b. #정수가 과자를 마셨다.
 c. #정수가 음악회를 마셨다.

이 예들은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의미 유형이 구체적 사물인가 추상적인가 혹은 사건인가, 구체적 사물 중에서도 개체적인 것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등에 따라 구별되며 이러한 논항의 의미 유형이 의미적 적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미세한 의미 유형의 지정이 어휘의미론에서 필요함을 보여 준다.

자세한 의미 유형의 기반에서 다의성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 준다. 다음의 a, b 두 문장에서 '문'은 동일한 의미 유형이 아니다.

- (5) a. 정수가 문을 칠했다. / 문이 파랗다.
 b. 정수가 문으로 들어왔다.
 c. 정수가 파란 문으로 들어왔다.

3) 동사의 의미 표상에는 주로 형상역과 작인역이 명세된다. 예를 들어, break의 경우 그 사건이 생겨나는 것은 부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작인), 그것이 인식되어 다른 사건과 구분되는 것은 그 부서진 결과에 의존한다(형상).

a의 '문'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개체이지만 b의 '문'은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때의 두 '문'에서 보이는 다의성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관련된 개념이고, 더구나 c에서처럼 두 의미가 동시에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다의성의 문제를 언어의 중심 문제로 파악하고 심각하게 고려하는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위의 경우에 제시하는 해답은 복합 타입(complex type)이다. 복합 타입 혹은 점타입(dotted type)은 타입이 어느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는 미명세된 타입이며, 바로 이러한 미명세가 다의성을 기술하는 생성어휘부 이론의 중요한 기제이다.

따라서 '문'의 의미타입은 다음과 같은 복합타입으로 기술한다.

(6) 문: 물체.공간

형식적인 표상에서 복합타입의 구성 타입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책'의 경우 물체가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성, 기능, 작인의 역할은 복합타입을 구성하는 각 개별 타입과 관련이 있다. '책'을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7) 책

특질구조 = 형상 = x.y:물체.정보
 구성 = 구성됨(e_1, x, z 종이)
 기능 = 읽음(e_2, w :사람, y)
 작인 = 씀(e_3, v :사람, y), 제책함(e_4, t :사람, x)

타입과 관련된 다의어 기술의 생성적 기제가 타입강제(type coercion)이다. 이것은 어떤 함수 의미가 기본적인 뜻에서 취할 수 있는 논항의 타입을 만났을 때, 그 논항의 의미와 관련된 적절한 타입의 의미를 강제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많은 상적 동사들— '시작하다, 계속하다, 끝내다' 등—이 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사건 타입의 논항을 취한다. 어떤 사건을 시작하고, 끝내고,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철수가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계속했다/끝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사건 타입이 아닌 논항이 오더라도 적절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9) 철수가 그 책을 시작했다/계속했다/끝냈다.

위 문장들은 '철수가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철수

가 그 책을 쓰기를 끝냈다'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이 '철수가 그 책을 찢기를 시작했다' 등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이 경우, 기능역, 작인역 등이 포함된 논항의 풍부한 의미표상을 바탕으로 타입강제라는 생성적 기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상적 술어의 다의성을 적절히 포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예에서 '책'은 작인역에서 '쓰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기능역에서 '읽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그 책을 시작하다'라는 표현에서 '시작하다'가 요구하는 사건 논항은 바로 작인역과 기능역에 표상된 사건 표상에서 공급된다. '찢는' 사건은 어휘의미 표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과의 강제적 연결은 불가능하다.

다의어 설명을 위한 생성적 기제는 타입강제 이외에도 선택결속과 공동합성이 있다. 선택결속(selective binding)은 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의미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생성 기제이다.

(10) 빠른 보트/타이피스트/운전자/길

여기서, 빠르다는 의미가 다 다른 것은 수식받는 명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며, '빠르다'라는 형용사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각 명사의 의미구조에 반영된 기능역 혹은 작인역과 관련된 사건이 수식어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의미 표상의 내부의 특정 부분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선수'가 성품이 좋은 선수라는 의미와 운동을 잘 하는 선수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단어 의미에 나타나는 규칙적 다의성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기제가 공동합성(co-composition)이다. 전형적인 예는 '굽다'와 같이 상태변화의 의미('밤을 굽다')와 제조의 의미('케익을 굽다')의 두 가지 뜻을 갖는 동사들이다. 이러한 다의성은 생성어휘부의 관점에서 보면 동사의 두 가지 뜻이라기보다는 그 동사가 결합하는 명사의 차이에서 오는 의미의 차이이다. 즉, '굽다'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뜻만을 갖는다.

(11) 굽다

논항구조 = 논항1 = x:사람

논항2 = y:물체

특질구조 = 형상 = 구워진_상태임(e_2, y)

작인 = 굽는_행위(e_1, x, y)

'밤'의 경우 실제적인 물체이므로 y 자리에 그 의미 지시체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밤을 굽다'의 특질구조는 위의 구조와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러나 '케익을 굽다'의 경우는 다르다. '케익'은 그 의미표상에 이미 이것이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움으로써 생겨난다는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12) 케익

- 논항구조 = 논항1 = x:음식물
- 당연논항2 = y:물질
- 특질구조 = 형상 = x
- 구성 = 구성됨(e₁, x, y)
- 기능 = 먹음(e₂, w:사람, x)
- 작인 = 굽는_행위(e₃, v:사람, y)

‘굽다’와 ‘케익’이 결합할 때, ‘케익’의 의미구조에 포함된 작인 의미가 고려되어 궁극적으로 ‘케익을 굽다’는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가지게 된다.

(13) 케익을 굽다

- 논항구조 = 논항1 = z:사람
- 논항2 = x:케익 [구성=구성됨(e,x,y)]
- 당연논항3 = y:물질
- 특질구조 = 형상 = 구워진_상태임(e₂, y)
- 작인 = 굽는_행위(e₁, z, y)

‘굽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상태변화의 뜻과 제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술어의 의미를 공동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14) a. 감자를 굽다 / 과자를 굽다
- b. 물을 끓이다 / 찌개를 끓이다
- c. 벽을 뚫다 / 구멍을 뚫다

3. ‘사다’와 ‘팔다’의 분석

3.1. 사건구조

한국어의 ‘사다’와 ‘팔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받거나 (‘사다’) 혹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다(‘팔다’)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뜻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뜻인 상거래의 뜻이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어떻게 표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⁴⁾

4) ‘사다’와 ‘팔다’의 상거래의 기본적인 뜻의 중요성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빈도에 명확이 나타난다.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소분석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고려대학교 전자텍스트 연구소의 용례추출 서비스인 CETConc로 검색하여 조사한 결과는, ‘사다’ 약 610회 사용 중 82%, ‘팔다’ 약 330회 사용

먼저 그 사건구조에 대한 논의에서는, 하위사건의 구성과 타입, 중점 문제 등을 결정해야 한다. Pustejovsky(1995)는 영어의 buy와 sell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인데 중점이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15) Pustejovsky (1995)

- a. buy $e_1^* \circ e_2$
 b. sell $e_1 \circ e_2^*$

이것은 사는 사건과 파는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으로 인식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사는 행위를 한다면 동시에 상대방은 파는 행위를 하는 셈이며, 따라서 사는 사건과 파는 사건은 공동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circ), 다만 어느 쪽에 인지적 중심 즉 관점이 있는냐에 따라 실현 동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하부사건 파악과 중점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의 관점에서 본 ‘팔다’ 혹은 ‘사다’의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다시 시간적으로 연속된 두 개의 하위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는 행위 혹은 파는 행위가 진행된 후 소유가 바뀐 결과 상황이 온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뛰다’와는 달리, ‘짓다’, ‘깨뜨리다’가 어떤 행위와 결과의 하위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뛰다’와 같은 과정 동사와 ‘짓다’와 같은 완성 동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관계에서 잘 나타난다(Vendler, 1967).⁵⁾

(16) 철수가 뛰고 있다 \Rightarrow (함의) 철수가 뛰었다.

(17) 철수가 집을 짓고 있다 \nRightarrow (함의 안함) 철수가 집을 지었다.

‘사다’, ‘팔다’는 ‘짓다’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함의를 성립시키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사다’와 ‘팔다’가 두 개의 하위 사건인 e_1 , e_2 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 (18) a. 상인이 그 물건을 팔고 있다 \nRightarrow 상인이 그 물건을 팔았다
 b. 상인이 그 물건을 사고 있다 \nRightarrow 상인이 그 물건을 샀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짓다’와 같은 완성(accomplishment) 동사와 ‘깨뜨리다’와 같은 성취(achievement) 동사의 차이를 선행 하위 사건이 중점인가 혹은 후행

중 83% 정도가 기본 상거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CETConc는 http://ikc.korea.ac.kr/san/san6_start.htm 로 접근할 수 있다.)

5) 이하의 ‘사다’, ‘팔다’의 의미구조에 대한 논의와 분석(사건구조, 논항구조 등)은 필자가 생성어휘부 이론의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Pustejovsky(1995 등)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아님을 밝힌다.

하위 사건이 중점인가의 차이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 만에' 같은 시간적 기간 부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완성동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두 달 만에 그 집을 지었다'; *'두 시간 만에 그 화병을 깨뜨렸다'),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사다', '팔다'는 완성 동사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중점이 선행 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19) a. 한 시간 만에 그 집을 팔았다.
- b. 한 시간 만에 그 집을 샀다.

이상의 논의에서 '사다', '팔다'의 사건구조는 모두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 (20) 사건구조 = 사건1 = e_i: 과정
- 사건2 = e_j: 상태
- 선후제약 = <
- 중점 = e_i

3.2. 논항구조

'사다', '팔다'는 개념적으로 물건과 돈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쌍방의 사람들이 관계되는 상황을 기술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논항이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것들은 필수적인 반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표현되거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없다. 후자를 당연논항으로 파악한다.

먼저 '사다'의 경우.

- (21) a. 그 사람이 피아노를 샀다.
- b. 그 사람이 피아노를 상인에게(서) 샀다.
- c. 그 사람이 피아노를 100만원에 샀다.
- d. 그 사람이 피아노를 상인에게(서) 100만원에 샀다.
- e. *피아노를 샀다.
- f. *그 사람이 상인에게서 샀다.

'사다'의 논항들의 타입과 논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22) '사다'의 논항의 의미 타입과 논항 자격
- a. 행위자 - 사람, 필수논항
- b. 대상 - 사물(구체), 필수논항;
- c. 원천 - 사람, 당연논항
- d. 수단 - 돈, 당연논항

‘팔다’의 예문들을 검토해 보면, ‘사다’와 다른 논항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 (23) a. 그 사람이 피아노를 팔았다.
- b. 그 사람이 피아노를 상인에게 팔았다.
- c. 그 사람이 피아노를 100만원에 팔았다.
- d. 그 사람이 피아노를 상인에게 100만원에 팔았다.
- e. *피아노를 팔았다.
- f. *그 사람이 상인에게 팔았다.

- (24) ‘팔다’의 논항의 의미 타입과 논항 자격
 - a. 행위자 - 사람, 필수논항
 - b. 대상 - 사물(구체), 필수논항;
 - c. 착점 - 사람, 당연논항
 - d. 수단 - 돈, 당연논항

3.3. 기본 뜻의 의미 구조 표상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다’, ‘팔다’의 기본 의미의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6)

(25) 사다

- 사건구조 = 사건1 = e₁: 과정
- 사건2 = e₂: 상태
- 선후제약 = <
- 중점 = e₁
- 논항구조 = 논항1 = x: 사람
- 논항2 = y: 물체
- 당연논항3 = a: 사람
- 당연논항4 = b: 돈
- { 격구조 = 격틀 = ‘x-가 (a-에게)로부터 y-를 (b-에)로 ~’ }
- 특질구조 = 형상 = 소유함(e₂, x, y) ∧
- 소유하지_않음(e₂, a, y) ∧ ...
- 작인 = 사는_행위(e₁, x, y, a, b)

6) 의미 표상에서 ‘격구조’는 원래의 생성어휘부 이론에는 없는 것이다. 격은 표상된 의미로부터 연결(linking) 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정민 외(1999)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연결 원리가 확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격구조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이론적 입장에서 격구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시각적 편의를 위하여 괄호 속에 제시한다.

(26) 팔다

- 사건구조 = 사건1 = e₁: 과정
- 사건2 = e₂: 상태
- 선후제약 = <
- 중점 = e₁
- 논항구조 = 논항1 = x: 사람
- 논항2 = y: 물체
- 당연논항3 = a: 사람
- 당연논항4 = b: 돈
- { 격구조 = 격틀 = 'x-가 (a-에게) y-를 (b-에)로 ~' }
- 특질구조 = 형상 = 소유하지_않음(e₂, x, y) ∧
- 소유함(e₂, a, y) ∧ ...
- 작인 = 파는_행위(e₁, x, y, a, b)

3.4. '사다', '팔다'의 다의성과 통합 표상

이 절에서의 논의는 '사다', '팔다'의 여러 가지 뜻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먼저 '사다'에 대하여 논의하자. '사다'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사다

- a. 물건을 사다 (돈을 주고 구입하다)
- b. 사람(남자/여자/인부)을 사다 (일을 시키다)
- c. 친구에게 저녁을 사다 (대접하다)
- d. 감정(미움/반발/두려움/분노/의심/호감/빈축)을 사다
(발생시키다, 초래하다)
- e. 그의 업적을 높이 사다 (인정하다)
- f. 쌀을 팔아 돈을 사다 (벌다)

생성어휘부 이론은 다의어의 모든 뜻을 통합하여 기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규칙적이고 생산적인 다의성만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6가지의 뜻 중 f의 '쌀을 팔아 돈을 사다'와 같은 용법은 '쌀' 또는 다른 곡식과 관련된 특수한 용법으로, 의미 통합의 대상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다른 속어 표현이나 관용 표현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기술하면 된다. 나머지 a-e의 뜻들은 어떠한가?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들 모두를 통합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것을 얻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때 d는 대가를 지불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받는 감정 혹은 평가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e의 경우에는 그러한 확장도 좀 무리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e의 뜻은 별도로 기술하고 d는 일반적으로 발생

하는 물리적 의미의 추상적 확장으로 상정하고, a-c의 세 가지 뜻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기로 하자. 부연하자면, d는 '바다가 깊다'의 물리적 영역에서 '사랑이 깊다'와 같은 감정적 영역으로 가는 일반적인 의미 확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위의 a-c의 세 가지 의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의미구조라고 볼 여지가 있다. a의 기본 의미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지만, b의 경우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것이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물건의 경우 단순한 소유의 변화에 주안점이 있는 반면, 사람을 살 경우에는 소유의 변화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 저녁을 사는 경우는 저녁을 사서 산 사람이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뜻은 모두가 어떤 행동주가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자신이 소유 내지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생성어휘부의 생성기제의 하나인 공동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밤을 굶다'와 '케익을 굶다'에서 상태변화와 제조의 의미 차이는 '굶다'의 다의성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밤'과 '케익'의 의미 차이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사다', '인부를 사다', '저녁을 사다'의 의미 차이는 '피아노', '인부', '저녁'의 의미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 차이는 특질구조의 기능역 혹은 작인역의 의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사다'의 의미 기술에 참고할 만한 것이 Pustejovsky(1995)의 open에 대한 논의이다.

- (28) a. John opened the door.
b. John opened the book.

문을 여는 것과 책을 여는 것의 의미 차이는 door와 book의 의미 차이, 구체적으로 그것들의 기능역의 차이에 기인한다. door의 기능은 그것을 통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book의 기능은 그것을 읽는 것이다.

- (29) a. door (x)
TELIC = walk_through (e, z:사람, x:공간)
b. book (x)
TELIC = read (e, z:사람, x:정보)

그리고 open은 의미 표상의 작인역에 여는 행위가 명세되고, 형상역에는 단순히 어떤 것이 열린 상태가 아닌, 그 대상의 기능역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30) open (x,y)

EVENTSTR = E1 = e₁: process
 E2 = e₂: state
 ARGSTR = ARG1 = x: human
 ARG2 = y: phys_obj
 QUALIA = FORMAL = P(e₂, <[TELIC(y)])
 AGENT = open_act(e₁, x, y)

즉, open의 결과 상태는 목적어 논항의 기능역에 표상된 사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속성(P) 부여이다. 속성 P는 동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book과 door의 기능역 차이에 따라 open the door와 open the book의 의미 차이가 설명된다.

'사다'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의 의미 표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피아노를 사는 것은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연주의 도구가 된다는 기능역이 부각되며, 인부를 사는 것은 인부는 일을 시키는 대상이라는 기능역의 의미가 부각된다. 이러한 명사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31) 피아노 (x)

논항구조 = x:물체
 특질구조 = 형상 = x
 기능 = 연주(e, z, x)

(32) 인부 (x)

논항구조 = x:사람
 특질구조 = 형상 = x
 기능 = 일함(e, x) ...

그리고, '사다'의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33) 사다

사건구조 = 사건1 = e₁: 과정
 사건2 = e₂: 상태
 선후제약 = <
 중점 = e₁
 논항구조 = 논항1 = x:사람
 논항2 = y:
 당연논항3 = a:사람
 당연논항4 = b:돈

{ 격구조 = 격률 = 'x-가 (a-에게)로부터 y-를 (b-에게) ~' }
 특질구조 = 형상 = 소유함(e₂, x, y) ∧ P(e₂, x, ◇[TELIC(y)])
 작인 = 사는_행위(e₁, x, y, a, b)

여기서, 한 ‘어학연구’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P(e₂, x, ◇[TELIC(y)])” 부분이 형상역에 제시된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을 기능역에 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역이란 명사 지시체의 사용 역할을 표시하는 데 쓰이므로, 용언의 경우 기능역에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가 불확실하다. 아울러, 동사의 의미 표시에서 형상역을 사건의 결과적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면, 어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소유주의 이용 가능성이 매때 결과의 일부라고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다음, ‘저녁을 사다’, 혹은 ‘선물을 사다’, ‘술을 사다’, ‘커피를 사다’의 의미 표상에 대해 살펴보자. 이 경우, 기능역뿐 아니라, 작인역 정보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선물’이 성립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어야 성립한다. 이때 전형적인 것은 사서 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작인역에 있으면, ‘사다’ 동사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선물을 사다’의 작인역에 ‘선물’의 작인역 정보를 끌어들인다. ‘커피’의 경우도 음료로서의 뜻 표시에 ‘사서 대접함’을 표시하면, 공동합성의 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케익을 굽다’에서 사용된 기제와 같은 것이다.

(34) 커피 (y)⁷⁾

논항구조 = 논항1 = y:음료

특질구조 = 형상 = y

기능 = 마심(e, z, y) ∧ 사는_행위(e₁, x, y) ∧

함께_먹는_행위(e₃, x, y, u: 사람)⁸⁾

7) 여기의 ‘커피’의 의미는 음료로서의 의미만을 표상한 것이다. 익명의 어학연구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커피’는 커피나무, 커피나무 열매, 볶은 커피나무 열매, 음료로서의 세부적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서 드러난다: ‘커피를 재배하다 / 커피를 따다 / 커피 한 봉지 / 커피를 마시다’ 등. ‘커피’의 뜻에 따라 그 기능역과 작인역의 기술이 달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커피를 사다’의 분석은 순전히 음료로서의 ‘커피’와 관련된 분석이며, 실제로 ‘커피를 사다’의 여러 가지 뜻 (‘볶은 커피나무 열매를 사다’, ‘커피나무를 사다’, ...) 중 음료와 관련된 뜻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커피’의 여러 가지 뜻의 다의성은 앞에서 제시한 생성어휘부 기제와는 다른 일반적인 원리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식물과 그 열매(‘사과’), 개체와 물질(‘사과’) 등의 혼허 일어나는 다의 문제를 다루는, 어느 이론에서나 필요한, 기제가 필요하다. ‘저녁’과 같이 시간과 식사 of 이중적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고려가 적용된다.

8) “함께 즐김” 혹은 “함께 먹음”, “대접함” 등의 의미가 커피의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커피, 차, 식사, 저녁(식사), 빵’이 문제의 ‘사다’ 구문에 쓰이는 반면, ‘책상, 지우개, 연필, 집’ 등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그가 나에게 책상을 샀다’), 그리고 음식물 중에서도 ‘고등어, 쇠고기’ 등 음식 재료에 대해서도 그러한 구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그가 나에게 쇠고기를 샀다’)에서, 커피 등의 고유한 어휘적 의미로서의 “함께 먹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함께하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이 새로운 논항으로 출현한다고 본다.

'커피를 사다'는 공동합성의 결과 '사다'와는 달리 '-에게' 논항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35) 커피를 사다

논항구조 = 논항1 = x:사람

논항2 = y:커피

논항3 = u:사람

{ 격구조 = 격틀 = 'x-가 (u-에게) y-를 ~' }

특질구조 = 형상 = P(e₂, ◇[마침(e, x, y)])

작인 = 사는_행위(e₁, x, y) ∧

함께_먹는_행위(e₃, x, y, u: 사람)

즉 '사다'의 의미표상에 포함된 "사는_행위"가 '커피'의 기능역 의미표상과 일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함께_먹는_행위"의 의미가 '커피를 사다' 전체의 의미 속으로 들어 온다고 볼 수 있다.⁹⁾

이상에서 '사다'와 관련된 몇 가지 뜻의 통합을 공동합성이라는 생성적 기제를 이용하여 시도해 보았다. 이제, '팔다'의 다의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팔다'의 여러 가지 뜻은 다음과 같다.

(36) 팔다

- a. 물건을 팔다 (판매하다)
- b. 몸을 팔다 (성적으로 제공하다)
- c. 조국을 팔다 (배반하다)
- d. 이름을 팔다 (이용하다)
- e. 쌀을 팔다 (구입하다)
- f. 한눈을/정신을 팔다

'쌀을 팔아 돈을 사다'의 '사다'를 특수한 용법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었듯이, e의 '쌀을 팔다'는 특수한 관용적 용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한눈을 팔다, 정신을 팔다'도 속어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름'을 파는 것은 돈이나 재물을 받고 그것을 내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것도 의미 통합이 쉽지 않다. 따라서 a-c의 세 가지 뜻의 통합적 기술을 시도해 볼 만하다. 자신의 소유물(조국의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을 내어 주고, 대신 돈 등 이득을 취한다는 면에서 이 뜻들은 일맥상통한다. 그

9) '커피를 사다'의 분석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커피'의 기능역에 포함된 "함께 먹음"의 의미가 '커피를 사다'에서는 작인역으로 나타나는 기제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분석에 불만족한다면 결국, '커피를 사다'의 '사다'는 '피아노를 사다'의 '사다'와는 별개의 논항구조를 갖는 별개의 항목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합적 방법은 기본 의미의 동일성(매매를 통한 사물의 획득)을 고려할 때 시도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러나 '사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항 명사의 기능역의 의미 차이에 따라 결과 의미가 달라지므로, '팔다'의 의미 표상 중 형상역 부분에 논항의 기능역 의미를 고려하는 표상을 넣으면 될 것이다.

(37) 팔다

- 사건구조 = 사건1 = e₁: 과정
- = 사건2 = e₂: 상태
- 선후제약 = <
- 중점 = e₁
- 논항구조 = 논항1 = x: 사람
- = 논항2 = y:
- 당연논항3 = a: 사람
- = 당연논항4 = b: 돈
- { 격구조 = 격틀 = 'x-가 (a-에게) y-를 (b-에로) ~' }
- 특질구조 = 형상 = 소유하지_않음(e₂,x,y) ∧
 P(e₂, a, ◇{TELIC(y)})
- 작인 = 파는_행위(e₁, x, y, a, b)

'팔다'와 결합하는 명사들의 의미구조, 특히 기능역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38) 물건 (x)

- 논항구조 = x:물체
- 특질구조 = 형상 = x
- 기능 = 이용함(e, z, x) ...

(39) 몸 (x)

- 논항구조 = x:사람
- 특질구조 = 형상 = x
- 기능 = 성행위 (e, z, x) ...

즉, '팔다'의 형상역에 나타난 대로, 파는 사건의 결과 상태는 파는 물건(사람)을 새롭게 소유한 사람이 그것의 기능적 특성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 '조국'을 팔 경우에도 돈이나 재물이나 이득이 관련된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이나 '몸'과 다르지 않다.

이상으로, '사다', '팔다'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생성적 기제를 이용하여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의 통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 마무리

생성어휘부 이론은 전통적인 사전 편찬에서 사용하는 뜻 나열 방식을 지양한다. '사다'와 '팔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뜻의 나열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관련된 뜻들을 통합한다. 즉, 규칙적 다의성을 통합하여 기술함으로써 어휘부에 나타나는 언어의 창조성과 생성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즉, 무한한 의미의 세계를 유한한 수효의 단어들을 기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지적 과정을 적절히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생성어휘부 이론이 애초부터 전산언어학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는 것은, 전산적 실용성을 갖춘 어휘부의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것의 의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성어휘부 이론의 풍부한 기제를 충분히 이용한 시스템은 연구, 개발 단계에 있음을 인정할 때, 그러한 생성어휘부 이론의 다의 처리가 전산적인 실용성과 타당성을 가질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의미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은 인지의미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생성어휘부 이론의 목표는, 인지의미론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은, 관련있는 모든 뜻의 연결과 통합이 아니다. 아무리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성이 규칙적이고, 광범위하지 않다면 의미 통합과 생성적 기제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사다'와 '팔다'의 여러 가지 뜻들 중 이 단어들에 특수한 용법들까지 통합하는 것을 큰 의의가 없다. 말하자면, 인지의미론이 여러 가지 뜻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엄밀한 방법적 제약이 없는 듯이 보이며, 결국 모든 뜻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게끔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약점을 생성어휘부 이론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어휘부 이론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실제 사전 편찬에 이용되거나 다른 어휘의미론을 당장 대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성어휘부 이론이 어휘 의미의 생산성을 포착하는 면이 있지만, 이것이 어휘부에서 과생성의 문제를 잉태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타입강제가 적용되어서 훌륭한 문장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 (40) a. 철수가 그 {책, ?소설, ??시}을/를 시작했다.
 (쓰기 시작했다, 읽기 시작했다)
 b. *철수가 그 연극을 시작했다. (보기 시작했다)
 c. *철수가 그 물을 시작했다. (마시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이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휘부의 생산성을 산출이 아닌 이해(comprehension)의 관점에서 볼 때 생성어휘부 이론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다의어 기술의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뜻의 통합과 분리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Pustejovsky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생성적 기제에서 찾은 셈이다.

그렇지만, 다의어 문제는 의미적 생성기제에만 의존할 수 없고, 언어의 쓰임과 화용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생성어휘부 이론의 주창자인 Pustejovsky의 다음과 같은 말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41) Pustejovsky (1995, p. 236)¹⁰⁾

“ ... 다의성이란 하나의 균질적인 현상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강제, 공동 합성 들과 같은 의미론에서의 조합적 작용의 결과인 동시에, 담화의 수사적 관련성의 구조, 공지시의 화용적 제약 들과 같은 맥락적 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 (1999). 어휘 의미 정보의 구조와 표상 - 한국어 명사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 83-118.
- 강범모. (2001). 범주문법: 한국어의 형태론, 통사론, 타입논리적 의미론. 민족문화 연구총서 94. 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윤신. (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예식. (1999). 어휘 의미론과 다의어의 의미 분석. 강범모 외 공저,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제12장. 서울: 한신문화사.
- 이정민 · 강범모 · 남승호. (1997). 한국어 술어 중심의 의미구조-생성어휘부 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인지과학회 '97 춘계 학술 발표 논문집, 32-40.
- 이정민 · 강범모 · 남승호. (1999). 한국어 술어 중심의 어휘부 의미구조 연구. 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장석진. (2001). 자연언어 이해를 위한 중간언어 표상.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40.
- 최경봉. (1996). 국어 명사의 의미 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재성 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출판사.
- 홍재성 외. (1998-1999).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Apresjan, J. D. (1973). Regular polysemy. *Linguistics* 142, 5-32.
- Buitelaar, P. (1998). *CoreLex: Systematic Polysemy and Underspecif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Busa, F. (1996). *Compositionality and the Semantics of Nminals*. Unpub-

10) “... polysemy is not a single, monolithic phenomenon. Rather, it is the result of both compositional operations in the semantics, such as coercion and cocomposition, and of contextual effects, such as the structure of rhetorical relations in discourse and pragmatic constraints on co-reference.”

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D. Reidel.
- Lee, C.-M., S.-H., Nam, B.-M.,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J. Boas and P. Buitelaar, eds., *Proceedings of ESSLI-98 Workshop: Lxical Smantics in Cntext - Crpus, Iference and Dscourse* (pp. 1-15).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The MIT Press.
- Pustejovsky, J. (2000). Events a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C. Tenny and J. Pustejovsky, eds., *Events and Grammatical Objects* (pp. 445-482). Stanford: CSLI.
- Ravin, Y. and L. Claudia. eds., (2000). Polysemy: An overview. In Ravin and Leacock, eds.,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pp. 1-2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강 범 모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과학과

전자우편 : bmkang@korea.ac.kr

접수일자 : 2002. 1. 7

수정본 접수 : 2002. 2. 18

계재결정 : 2002. 2. 22